

# 準據集團規範과 出產行動과의 關聯性에 관한 考察

目	I. 理論的인 틀
	II. 準據集團의 定義
次	III. 出產行動과 規範
	IV. 關聯研究
	V. 觀點 및 研究領域
	VI. 맺는 말

## I. 理論的인 틀

모든 學問들이 나타난 現象을 說明하기 위해 그나름대로의 독특한 假想的 實體(hypothetical entities)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化學에서 原子는 오랫동안 직접 관찰될 수 없는 假想的인 實體이었다.

社會科學과 自然科學은 자기 다루고 있는 現象의 性格이 根本的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物理學에서는 原子가 어떻게 느낄런지 관심을 두지 않지만, 社會學者들은 그가 研究하는 對象의 內的인 經驗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이처럼 他人의 行動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앞서 言及된 假想的인 “潛在 實體(latent entities)”는 行爲者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現象이며, 동시에 集團水準에서 일어나는 現象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集團內部에서는 集團 構成員 개개인의 個性과 經驗들에 의해 자기 役割들이 遂行되고 있다.<sup>1)</sup>

人間 行動과 人間相互關係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心理學的 측면을 파악할 必要性이 있는데, 그 對象으로는 먼저 意識的인 經驗(conscious experiences)이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行爲者의 內省(introspection)에까지 파고들어 行爲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價値나 規範이나 熱望, 그리고 이 과정을 인도해 주는 知識까지도 포함한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研究者들은 人間の 行動 動機들이 無意識的으로 억제되었을 때조차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動機들이 行爲者가 이미 受容한 價値·規範과 마찰하게 되면, 이들 價値·規範은 비록 억제되었을지라도 個人的 行動과 內的인 經驗(introspective experiences)에 매우 강한 影響력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숨은 變數들은, 관찰가능한 指標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sup>2)</sup>

이러한 理論的인 배경에서 볼 때 人間の 行動을 설명하는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다.

\* 家族計劃研究院 研究員.

1) Nowak, Stefan, *Methodology of Sociological Research*, Dordrecht, Holland: D. Reidel Publishing Co., 1977, pp. 48~49.  
2) *Ibid.*, pp. 50~51.

더군다나 研究方法論 자체가 理論에서 제기된 문제를 解明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

「머튼」(Robert K. Merton)은 社會體系의 屬性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統計學的 指標들이 社會구성요원인 각 個人의 行動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指標를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또 個人의 態度에 관해서도 비록 個人의 態度를 설명할 精確한 測定値가 구해졌을지라도 이들은 社會構造의 測定値와 거의 連結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社會構造와 그 構造內에서의 個人行動의 두 領域을 모두 잘 설명할 수 있는 指標를 開發하는 것이 重要하며, 또 可能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sup>

또다른 側面에서 個人의 行動을 社會集團의 性格과 비교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出產行動은 人間의 行動가운데 「cost-benefit」이라는 經濟原理에 입각한 一般 經濟的 行動과 견주어 볼 때, 感情에 의해 더 많이 지배되어 있거나 地域社會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그와 같은 성격상 쉽게 관찰될 수 없는 숨은 變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경험적인 分析結果로 만족스럽게 나타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假想的인 實體로서 그 地域社會의 規範·價値가 그 地域社會의 出產行動을 지배한다고 前提한다면, 個人 또는 集團單位에서의 地域社會 出產行動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地域社會 構成員들의 意識的인 次元뿐만 아니라 規範이나 價値와의 갈등등, 人間行爲의 動機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個人의 行動이 그의 同僚에 의해 영향받는 다시 말해 動機가 부여되고, 암시되고 (cued), 報償을 받고 또 制裁를 받는 것은 주로 集團內部에서 相互作用에 의한 것이므로 準據集團은 個人을 社會와 연결시키는 고리일 뿐 아니라 “숨겨진 變數들”이 活動하는 場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 II. 準據集團의 定義

個人의 態度에 미치는 集團의 영향력은 자주 準據集團의 개념에 의해 이해된다. 準據集團은 하나의 社會的 單位인데, 個人은 그 集團이 自身과 共通되는 關心, 態度, 價値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며, 個人이 自己를 評價할 때와 態度를 形成할 때 根據로서 취하는 集團이다.<sup>4)</sup>

準據集團에 관한 연구는 集團이 構成員에게 影響力을 행사하고 있다는 원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個人이 소속한 集團뿐만 아니라 소속되기를 바라는 集團으로부터도 영향받는다는 사실등 個人과 集團간의 理解를 돕는데 많은 成果를 남기고 있다<sup>5)</sup>.

3) Merton, Robert 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 315.

4) Secord, Paul F., and Carl W. Backman, *Social Psychology*, Tokyo, McGraw-Hill, Kogakusha, Ltd., 1974, pp. 143~144.

5) Hyman, Herbert H., "Reference Group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ed. by David L. Sills, The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1968, pp. 353-361.

機能的인 측면에서 볼 때 準據集團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는 規範的 機能으로서 이것은 個人的 規範, 態度 및 價値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둘째는 比較機能인데 自身과 他人들을 평가하는 基準이나 比較點으로 사용된다.

모든 準據集團이 조직된 實在은 아니다. 그들은 모호한 集團이거나 社會的 範疇일 수도 있으며, 과거의 集團이거나 아직 生成되지 않은 集團일 수 있다. 그러한 集團은 認識하는 사람(perceiver)의 마음속에서만 살아있는 構造이며, 意思疏通이 되거나 行動을 처리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規範의 主觀的인 認識(autistic perception)이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고삐가 있다<sup>6)</sup>.

뿐만아니라 個人은 是認을 받기 위해서 또는 급속한 社會變化의 渦中에서 주위 환경의 복잡성을 정돈해줄 뚜렷한 觀點을 갖기 위해 規範的 準據集團을 추구하지만, “個人은 그의 態度에 영향을 미치는 集團影響力을 명확히 認識해야 할 필요는 없다”<sup>7)</sup>는 데서, 準據集團 關聯研究의 어려움이 있다.

### Ⅲ. 出產行動과 規範

避妊普及과 더불어 個人的 出產行動은 순진한 生物學的인 現象만으로 간주될 수 없게 되었다. 「라이더」(Norman B. Ryder, 1976)는 그의 論文에서 高出產力은 生物學的 遺傳으로 인한 것도 아니며 또 어떻게 妊娠이 豫防될 수 있는지에 관해 無知해서 나타난 結果도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社會化에 의해 形成되어 왔고 社會統制에 의해 維持되고 있는 體系的으로 制度化된 規定(prescription)이라고 강하게 規範的 측면을 強調하였다.<sup>8)</sup>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傳統社會에서 現代社會로 넘어오면서 나타난 出產力의 減少는 단지 物質的인 經濟條件의 向上에 의해서만 일어났다고는 볼 수 없고, 規範的 狀況의 變化에 의해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社會科學者는 사람들이 制度的인 構造(곧 規範의 複合物)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는가를 推定하기 위한 研究를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社會 變化가 급격히 일어났던 상황에서 과연 個人的 行爲變化는 價値變化와 어떠한 相關性안에서 이루어져 왔는지에 관한 研究는 중요한 課題가 된다.

社會는 個人을 敎育하며, 個人이 生活하는데 必要한 기준을 설정해주고, 그의 行動이 담겨져야 할 테두리를 규정한다. 그래서 社會는 個人에게 出產規範을 文化的인 傳統으로 지배하여 왔으며, 이러한 現象은 家族形成 過程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家族

6) *Ibid.*

7) Secord and Backman, *op. cit.*, p. 146.

8) Ryder, Norman, B., *Some Sociological Suggestions Concerning the Reduction of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Honolulu, East-West Center, 1976, p. 2.

中心的인 文化에서 家族이 없이는 정상적인 社會의 人間關係가 성립될 수 없으며, 子女의 父母에 대한 의무(孝)와 役割이 우리 社會의 傳統的인 특징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出產行動을 個人이 意圖的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個人이 속해있는 集團의 構造的 特徵이나 規範分析은 個人내지 集團全體의 出產行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다시말해서 小家族을 이루려는 個人의 강한 욕망도 어느 특수 집단이나 社會의 구성요원의 역할 때문에 避妊使用의 充分條件이 되지 못할 경우가 있다.

#### IV. 關聯研究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準據集團 規範과 個人내지 地域社會의 出產力간에 작용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그 동안의 研究는 거의 이를 동한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本章에서는 이 研究가 의도하는 焦點에 따라 態도와 行爲, 地域社會의 影響, 價値와 出產力으로 區分하여 관련된 調查研究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態도와 行爲

態도와 行爲간의 一致 또는 不一致의 기본 성격은 오랜 기간동안 經驗的으로 研究되어 왔다.

態도와 行爲간의 對應關係는 다음 세가지 뚜렷한 見解로 요약될 수 있다.<sup>9)</sup> “태도—행동의 일관성이론(the postulate of consistency)”은 말(言語)로 표현된 態도를 바탕으로 行爲를 예측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독립적인 變異의 이론(the postulate of independent variation)”에서는 態도와 行動은 一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條件의 一貫성의 이론(the postulate of contingent consistency)”에서는 規範, 役割, 集團 構成員, 準據集團, 下位文化등이 社會構造 內部에서 相互作用함으로써 態도와 行爲간의 관계가 수정된다는 것이다.

이상 제시된 態度—行爲간의 이론은 과연 어느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 할 수 없고 끝없는 討論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準據集團의 영향력을 두고 보건대 제일 마지막으로 소개된 「contingent consistency」 이론에 더욱 큰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이 이론의 근거로 제시된 研究로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sup>10)</sup>, 「마리화나」 사용<sup>11)</sup> 등 逸脫行爲를 研究한 報告가 있다.

9) Warner, Lyle C., and Melvin L. DeFleur, “Attitude as an Interactional Concept: Social Constraint and Social Distance as Intervening Variables between Attitudes and Action,” *ASR*, Vol. 34, No. 2, April 1969, pp. 153~169.

10) Fendrich, James M., “Perceived Reference Group Support: Racial Attitudes and Overt Behavior,” *ASR*, Vol. 32, 1967, pp. 960~970.

11) Andrews, Kenneth H., and Denise B. Kandel, “Attitude and Behavior: A Specification of the Contingent Consistency Hypothesis,” *ASR*, Vol. 44, April 1979, pp. 298~310.

즉 逸脫行爲에 관한 研究에서 個人의 態度와 外部로 나타난 行爲 사이에 개재된 社會的 影響의 한가지 型態로서 개인이 認知하는 準據集團의 位置(perceived reference group position)를 重要的 變數로 고려하였다.

만약 이와같은 이론이 家族計劃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면 현재 避妊受容의 態度는 호의적이거나 실제 避妊을 하지 않는 態度行爲간의 不一致를 「準據集團」의 역할로서 一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2. 地域社會의 影響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出産力과 地域社會의 影響에 관한 研究結果는 모두 個人의 出産行爲는 個人이 속해있는 環境에 의하여 支配的인 影響을 받을 수 있다는 假說을 입증하지 못하였다.<sup>12)</sup>

權(1976)의 研究에서도 높은 出産力을 설명하는데 家族主義, 親族紐帶, 그리고 地域社會의 압력등 傳統的 要因들을 중요시하였으나 現地觀察에 의하면 그러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社會 文化的 要因들은 子女數 選好에 단지 副次的인 役割을 수행할 뿐이었다.<sup>13)</sup>

地域社會의 特性이 뚜렷이 부각된 研究로는 「산두」(Sandhu)와 「알렌」(Allen)(1974)<sup>14)</sup>의 研究가 있는데 이들은 農業近代化가 높게 그리고 낮게 指定된 「폰잡」지방의 93個의 촌락에서 495명의 農夫들을 面接한 결과, 교육과 경작규모등 個人變數보다 組織의 支援과 意思疏通등 촌락 특성이 近代의 技術의 受容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發見하였다. 이 研究를 통해 個人의 行動을 적절하게 補強하는 것은 촌락단위로 形成되는 총체의 효과(global effect)라는 당초의 假定이 經驗的으로 뒷받침 되었으나, 準據集團과 유사한 개념으로 研究者가 설정한 同輩와의 경쟁(peer emulation)은 낮은 상관을 보여, 이 研究가 기초한 「集團은 個人에게 강한 影響력을 행사한다」는 「둘케임」의 「아이디어」는 「setting」에서 만이 증명되었고 影響력을 구사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무엇인가는 확인되지 않아 연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出産行動이 社會的 制約내지 환경요인에 대한 文化的 反應인 規範에 의해 影響받는다는 假定은 최근 「갈트」(Galt)와 「스미스」(Smith)(1979)<sup>15)</sup>의 研究에서 입증되었다. 研究者들은

12) 李時伯(外), 地域社會 特性이 家族計劃 및 出産行爲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家族計劃研究院, 1978. 12, pp. 103~104.

13) Kwon, Tai Hwan, "Attitudes toward Number and Sex of Children in Korean Communities," in *The Economic and Social Supports for High Fertility*, ed. by Lado T. Ruzicka,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in Canberra, Nov. 1976.

14) Sandhu, Harjit S., and Donald E. Allen, "The Village Influence on Punjabi Farm Modernization," *AJS*, Vol. 79, No. 4, 1974, pp. 967-980.

15) Galt, A. H., and L. J. Smith, "Anthropolog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on Small Family Size on the Island of Pantelleria, Sicily," *Population Studies*, Vol. 33, No. 2, July 1979, pp. 223-238.

「시실리」의 작은 섬을 대상으로 質問書調査와 人類學的 調査를 통해 밝혀낸 내용을 보면, 1900년 무렵 5명이었던 자녀수가 50년만에 2명으로 減少하였다는데 주목하고 이처럼 두명 또는 한명의 少子女 選好가 普遍的인 된데는 그 섬의 文化的인 類型인 分割相續制가 직접적인 誘因이었을 뿐아니라, 少子女가 規範으로 進化해서 그 섬에서 社會化된 사람들은 이들 規範을 內面化하였다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작은 섬에서 人口增加는 住民들 스스로를 위협하기 때문에 세명 이상을 낳는 사람에 대한 가족평판 「고집」을 통해 社會的 補強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로써 住民들 사이에 共有된 文化的 樣相은 그 社會에 맞게 適應的인 價値를 지닌 것이라는 研究 前提는 증명되었으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자”는 「슬로건」은 과연 우리사회의 文化나 전통·관습과 얼마나 조화될 수 있는 適應性을 갖고 있는지, 또 社會的 補強은 오히려 이를 거슬러 行使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등 새삼 의문점을 제시한다.

### 3. 價値와 出産力

出産行爲에서 個人 또는 相互 다른 集團간의 差異點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사회과학자 또는 인구학자들은 價値라는 說明變數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假定을 반대하여 설명하는 學者도 있다. 例로서 「스펜글러」(J. J. Spengler)는 가치이론이 인구학적 행동의 分析에는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懷疑的으로 보았다.<sup>16)</sup>

그가 제시한 理由로서는 첫째, 充分한 量의 價値들이 定義될 수 없거나 分離될 수 없으며, 둘째, 出産行動의 變化는 特定 價値變化에 한하여 不完全하게 關聯되며, 셋째, 價値와 그 變化된 내용을 분리시키고 이들 변화를 출산력 변화와 연관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좁은 價値에서의 변화가 실제 出産減少에 얼마큼 작용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스펜글러」의 주장과 같이 價値理論으로서 出産行爲를 설명하는데는 많은 制限點이 있고 이러한 점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타이완」의 家族價値 研究(1979)<sup>17)</sup>에서는 경제적생활 조건의 변화가 피임수용의 태도변화를 일으킨다는 관습적으로 認識되어오던 因果關係가 확실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經濟的 生活條件의 變化→家族의 機能에서의 變化→核家族化와 理想子女數의 減少→避妊受容에 대한 態度變化).

16) Spengler, Joseph J., "Values and Fertility Analysis," *Demography*, Vol. 3, No. 2, 1966, p. 121.

17) Coombs, Lolagene C., and Te-Hsiung Sun, *Changes in Familial Values in a Developing Society: Taiwan in the Sixties and Seventies*, Ann Arbor: Population Studies Center, 1979 mim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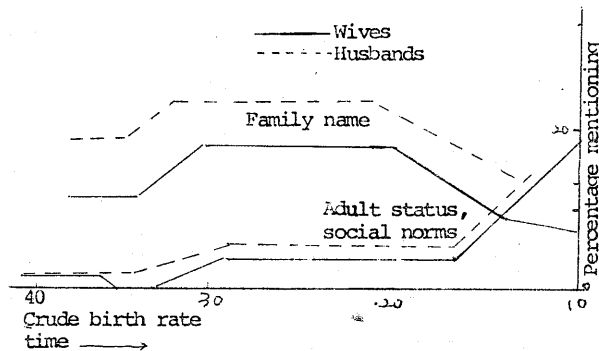
「타이완」에서 出生率이 대폭 減少하고 避妊使用率이 增加한데는 대부분의 家族價値가 많이 變化하지 않고도 일어났으며, 價値는 經濟가 發展되고 家族의 要求가 달라지는데 따라 점진적으로 變化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東南亞 8個國에서 실시된 子女價値觀 研究를 分析하면서 「블라타오」(R. A. Bulatao, 1979)<sup>18)</sup>는 出產力 變遷의 說明要因으로 설정된 要因들 가운데 하나인 “高出產力에 대한 文化的 支援(cultural props)의 弱化”가 出產力 減少에 중요한 요인으로 作用한 것 같지는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文化的 支援에 속하는 價値들로서 父母가 子女를 出產하는 動機중 家門, 宗教的 社會的 義務, 그리고 成人身分 내지 社會的 規範에 關連된 子女價値들로 定義하였으며, 出產水準에 따라 달라지는 어떠한 일관성있는 경향도 찾지 못하였다.

Figure 1. Salience of Family Name and Adult Status, Social Norms by Fertility Level, After Smoothing

出產水準別로 본 家門, 成人身分과 社會的 規範의 顯저하게 나타난 정도



Source: Bulatao, Rodolfo A., *On the Nature of the Transition in the Value of Children*, Honolulu, East-West Center, 1979, p. 79.

圖 1 에서 제시되었듯이 家門은 顯저성에서 減少되지 않았으며, 成人身分과 社會的 規範은 실제로 低出產力으로 갈수록 약간 重要性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블라타오」는 文化的 說明이 타당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父母가 子女出產에 加해지는 文化的인 압력을 숨기려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V. 觀點 및 研究領域

社會成員들의 出生행동을 이해하고자할 때 어떠한 觀點에서 접근하여야 할까?

18) Bulatao, Rodolfo A., *On the Nature of the Transition in the Value of Children*, Honolulu, East-West Center, 1979.

「라이더」(Norman B. Ryder)는 近代化와 出産減少 모두 보수성 (conservatism)이 강한 思考方式에 의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았다. 보수성은 집단, 지역사회 및 조직에 대한 관심보다는 問題發生의 根源을 個人에게 두고 個人의 特性에 관한 研究를 試圖함으로써, 個人行動을 수정하기 위한 方案을 제시하는 것이다.<sup>19)</sup>

이 分野研究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人間 集合體 (human collectivities) 또는 集團을 어떻게 限定하는가이다.

集團은 그 자신의 固有한 文化的 傳統, 地域社會의 感情, 그리고 空間的인 意思疏通 (spatial communication)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分析單位를 社會的 集團으로 놓았을 때 全體 社會的 場 (milieu)의 필수적 요소들로 구성되는 “傳統的 (tradition)” “過度期的 (transitional)”, 그리고 “現代的 (advanced)” 集團으로 分類해 볼 수 있다.

傳統社會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의 行爲樣式이 文化에 의한 처방 (prescription)이 많았으며, 現代社會에 올수록 個人에게 選擇의 自由가 많아졌다.

그렇다면 보다 傳統的인 社會에서는 높은 出産力에 대한 準據集團의 支持 (reference group support)가 강하리라 假定되는 한편, 現代社會에서는 少家族의 模倣 (이것도 準據集團의 支持의 일부인데)이라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家族構造 자체가 어느정도 압력을 지니는가를 보고자 集團을 家族類型別로 나눌 때 核家族에서 보다 直系·擴大家族에서 父母의 規範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假定할 수 있다.

社會現象을 연구할 때 가장 큰 근본적인 問題는 「하우저」(P. Hauser)가 말했듯이, 社會現象에 작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變數들은 거의 統制됨이 없이 어떻게 복잡한 상황을 考慮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sup>20)</sup>

그리고 規範, 他人, 準據集團등의 독립적인 存在를 어떻게 自我內部에서 일어나는 과정 (self-related processes)과 독립해서 測定할 것인가도<sup>21)</sup> 앞으로 탐구해야 할 큰 課題인 것이다.

## VI. 맺는 말

本稿의 研究假定 (research assumption)은 “社會는 個人의 行爲를 形成하며 引導한다”는

19) Ryder, *op. cit.* p. 13.

20) Kiser, Clyde V., “Highlights of the Informal Discussion,” in *Research in Family Planning*, ed. by Clyde V. Kis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p. 631.

21) Turner, Jonathan H.,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Homewood, Illinois: The Dorsey Press, 1978, p. 362.



비교적 단순한 理論에 根據하고 있다. 이러한 假說을 입증하기 위해서 個人의 態度와 行動을 위한 構造的 支援(즉 規範)이 複合的으로 고려되어 研究되어야 한다.

準據集團이 個人行爲에 영향을 미치는 支持形態(support) 또는 社會的 補強(social reinforcement)에 관한 研究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는 個人이나 영향을 주는 준거집단간의 「메카니즘」이 밝혀지지 않고는 급격한 價値變化의 狀況에서 個人 스스로가 그들의 行動을 어떻게 調整해 나갈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준거집단의 개념에 의해 個人 行動變化를 긍정적인 次元에서 이끌수도 있으나 그 반대로 個人을 二重價値的인(ambivalent) 狀況에도 처하게 한다(例: 少子女 欲求와 男兒를 갖기 위한 多子女 出產)

準據集團의 規範과 出產力 상호간에는 관련이 있으리라고 理論的으로 假定해 볼 수 있으나 실제 어떠한 함수가 있을런지는 아직 實證的인 研究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相關연구들은 個人의 行動만을 주로 연구했으며, 問題의 근원을 社會構造라는 커다란 덩어리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人口 및 家族計劃事業은 事業 主體者의 의도에 따라 出產調節爲主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이 分野 발전을 위해 人口와 家族計劃에 關聯된 研究들은 受惠者의 입장에서, 그가 처한 狀況을 고려한 人間行動의 포괄적인 理解를 통해 個人을 둘러싸고 있는 社會 構造자체에도 變化를 要求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研究結果를 토대로 人間行動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次元에서 政策方向을 提示해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만하임」(K. Mannheim)이言及하였듯이, “個人의 決定뒤에 숨겨진 動機의 「베일」을 걷어냄으로써, 여러가지 葛藤의 源泉을 제거시키고 그리하여 個人이 自覺 自由로 選擇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22)</sup>

#### 參 考 文 獻

- 李時伯(外), 地域社會 特性이 家族計劃 및 出產行爲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家族計劃研究院, 1978. 12.
- Acock, Alan C. and Melvin L. De Fleur, “A Configurational Approach to Contingent Consistency in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7, Dec. 1972.
- Andrews, Kenneth H. and Denise B. Kandel, “Attitude and Behavior: A Specification of the Contingent Consistency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4, April 1979.

22) Mannheim, Karl, *Ideology and Utopia: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6, p. 234.

- Akers, Ronald L., Marvin D. Krohn, Lanza-Kaduce, Lonni and Radosevich, Marcia, "Social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A Specific Test of a Gener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4, Aug. 1979.
- Bulatao, Rodolfo A., *On the Nature of the Transition in the Value of Children*, Honolulu: East-West Center, 1979.
- Bulatao, Rodolfo A., *Further Evidence of the Transition in the Value of Children*, Honolulu: East-West Center, 1979.
- Coombs, Lolagene C. and Te-Hsiung, Sun, *Changes in Familial Values in a Developing Society: Taiwan in the Sixties and Seventies*, Ann Arbor: Population Studies Center, 1979, mimeo.
- Fendrich, James M., "Perceived Reference Group Support: Racial Attitudes and Over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2, 1967.
- Gadalla, Saad M., *Is There Hope?: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in a Rural Egyptian Community*, Cairo: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1978.
- Galt, A.H. and L.J. Smith, "Anthropolog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on Small Family Size on the Island of Pantelleria, Sicily," *Population Studies*, Vol. 33, No. 2, July 1979.
- Hyman, Herbert H., "Reference Group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ed. by David L. Sills, The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1968.
- Kiser, Clyde V. "Highlights of the Informal Discussion," in *Research in Family Planning*, ed. by Clyde V. Kis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 Kwon, Tai Hwan, "Attitudes toward Number and Sex of Children in Korean Communities," in *The Economic and Social Support for High Fertility* ed. by Lado T. Ruzicka,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in Canberra, Nov. 1976.
- Lazarsfeld, Paul F. and Morris, Rosenberg, *The Language of Social Research: A Reader in the Methodology of Social Research*,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1957.
- Mannheim, Karl, *Ideology and Utopia: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6.
- Merton, Robert 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 Miller, Warren B. and Lucile F. Newman, (eds.), *The First Child and Family Formation*, Chapel Hill: Carolina Population Center, 1978.
- Nowak, Stefan, *Methodology of Sociological Research*, Dordrecht, Holland: D. Reidel Publishing Co., 1979.
- Ryder, Norman B., *Some Sociological Suggestions Concerning the Reduction of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Honolulu: East-West Center, 1976.
- Sandhu, Harjit S. and Donald E., Allen, "The Village Influence on Punjabi Farm Modern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9, No. 4, 1974.

- Secord, Paul F. and Carl W., Backman, *Social Psychology*, Tokyo: McGraw-Hill Kogakusha Ltd., 1974.
- Sherif, Muzafer and Carolyn W., Sherif, *Reference Groups*, Chicago: Henry Regnery Co., 1964.
- Spengler, Joseph J., "Values and Fertility Analysis," *Demography*, Vol. 3, No. 1, 1966.
- Turner, Jonathan H.,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Homewood, Illinois: The Dorsey Press, 1978.
- Warner, Lyle C. and Melvin L., DeFleur, "Attitude as an Interactional Concept: Social Constraint and Social Distance as Intervening Variables between Attitudes and 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4, No. 2, April 1969.

<Abstract>

## Reference Group Norm and Its Effects on Fertility Behavior

Hee Wan Kown\*

The paper proposes reference group support as an important research area through reviewing the findings of survey researches, and also relevant concepts. Its objects lie in exposing the relatively untouched field of role of reference groups in fertility behavior. And also it was aimed to provide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influence of a group is often treated in terms of the concept of reference group. A reference group is a social unit which the individual sees, as holding values in common with his own, and which he takes as a basis for self-evaluation and attitude formation. The most relevant theory is the contingent consistency hypothesis that social pressures reinforce the effect of attitude on behavior. The attitudes and behaviors pertain to use of family planning; the contingent effects are norms of parents and kins.

Another important concept to be tested is the community influence on member's family formation. The primacy of village characteristics over the individual factors was evident in theory and also in other settings, but not in Korea.

Thirdly, the paper concerns the relationships between fertility transition and changes in values.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parents conceal the cultural pressures for childbearing, either deliberately in order to avoid the appearance of being manipulated by others or unintentionally because these pressures are thoroughly internalized. In the traditional societies, many individuals choice are culturally prescribed, while in the modern societies, an individual exercises more freedom of choice.

Thus, the underlying assumptions are simple, that is, society shapes and directs individual behaviors. The study of reference group and social reinforcement is impor-

---

\* Junior Researcher, KIFP.

tant, because without a mechanism through which an individual relates himself to the larger society, an individual finds it very difficult to adjust his behavior in the midst of rapid social change.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researches have to focus on the groups or communities as the primary source of difficulties rather than focussing on individuals. And we should try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through understanding the situations surrounding individuals, departing from the conservative attitude of unquestioning the social structure.